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12. Adam's family”

Scripture: Genesis 5:1-32

Date preached: March 22<sup>nd</sup> 2026

<p>Scripture: Genesis 5:1-32</p> <p>1 This is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Adam. In the day that God created man, He made him in the likeness of God. 2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and blessed them and called them Mankind in the day they were created. 3 And Adam lived one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begot a son in his own likeness, after his image, and named him Seth. 4 After he begot Seth, the days of Adam were eight hundred years; and he had sons and daughters. 5 So all the days that Adam lived were nine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he died.</p> <p>6 Seth lived one hundred and five years, and begot Enosh. 7 After he begot Enosh, Seth lived eight hundred and seven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8 So all the days of Seth were nine hundred and twelve years; and he died.9 Enosh lived ninety years, and begot Cainan. 10 After he begot Cainan, Enosh lived eight hundred and fifteen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11 So all the days of Enosh were nine hundred and five years; and he died. 12 Cainan lived seventy years, and begot Mahalalel. 13 After he begot Mahalalel, Cainan lived eight hundred and forty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14 So all the days of Cainan were nine hundred and ten years; and he died.</p> <p>15 Mahalalel lived sixty-five years, and begot Jared. 16 After he begot Jared, Mahalalel lived eight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17 So all the days of Mahalalel were eight hundred and ninety-five years; and he died. 18 Jared lived o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nd begot Enoch. 19 After he begot Enoch, Jared lived eight hundred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0 So all the days of Jared were ni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nd he died.</p> <p>21 Enoch lived sixty-five years, and begot Methuselah. 22 After he begot Methuselah, Enoch walked with God three hundred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3 So all the days of Enoch were three hundred and sixty-five years. 24 An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25 Methuselah lived one hundred and eighty-seven years, and begot Lamech. 26 After he begot Lamech, Methuselah lived seven hundred and eighty-two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7 So all the days of Methuselah were nine hundred and sixty-nine years; and he died. 28 Lamech lived one hundred and eighty-two years, and had a son. 29 And he called his name Noah, saying, “This one will comfort us concerning our work and the toil of our hands, because of the ground which the LORD has cursed.” 30 After he begot Noah, Lamech lived five hundred and ninety-five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31 So all the days of Lamech were seven hundred and seventy-seven years; and he died.</p> <p>32 And Noah was five hundred years old, and Noah begot Shem, Ham, and Japheth.</p> <p>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사되 2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죽었더라</p> <p>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더라 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8 그는 구백삼십 세를 죽었더라 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더라 10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1 그는 구백오 세를 죽었더라 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더라 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14 그는 구백십 세를 죽었더라</p> <p>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벳을 낳았더라 16 야벳을 낳은 후 팔백삼십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더라 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죽었더라 18 야벳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더라 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나며 자녀</p>
--



면적으로 본문을 읽는 것을 넘어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구절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저는 그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꼭 붙잡으세요. 5 장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도짚어 보겠습니다.

4 장은 살인자 기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끝났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방랑자가 되는 벌을 받고, 하나님 곁을 떠나 동쪽 낫 땅으로 갔습니다. 낫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낫 땅에 있는 동안 기인은 결혼을 결심합니다.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싶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아내를 맞이했고 곧 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들의 이름은 에녹(그 유명한 에녹과는 다른 인물입니다)이었습니다. 카인은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에녹을 통해 기문은 대를 이어갔고, 몇 세대가 지난 후에 리멕이 등장합니다.

리멕은 대단히 악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는 성경 최초의 일부다처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리멕을 통해 인류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손 중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이 그들의 업적과 함께 언급됩니다. 첫째는 아발로, 유목 생활의 시초이자 천막을 발명하고 가축 사육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음악의 창시자이자 수금과 통소를 발명한 유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금술을 발명한 두발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약속의 후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하와는 그 이름을 셋Seth 이라고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셋에게도 아들이 생겼는데, 그의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여기서 4 장이 끝납니다.

오늘은 셋을 통해 이어진 후손들의 계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 장 전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 Introduction

We arrive now in chapter number 5 at the bible's first lengthy genealogy. Or to give it its proper technical name a toledat. Chapter 4 ended with a brief account of Cain's lineage, and a little of Adam's, but it is very short when compared with what we have before us now. It's a daunting list of fathers and their sons. A part of the bible that I'm afraid only excites biblical nerds. A section that might cause us to groan when we come to it in our bibles. This is a shame and I hope I can breathe some fresh life into this passage today. I hope I can interest you a little in the study of biblical genealogies. This is because they can be very instructive and helpful. They can teach us a great deal.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all of God's Word is precious and valuable. There are no parts that warrant skipping completely or quickly skimming through.

The genealogies we find in scripture help remind us of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scriptures. The bible is the account of real people, real families that God chose to work through in a genuine historical setting. We might not know much about these people but they lived, loved and died in the same way that we do. In this regard the genealogies also serve as a powerful testimony to the end of every person on this earth. No matter how long we live unless Christ returns we will all die.

When we come specifically to Genesis chapter 5 it is important to recognise that this is the only record we have of this long period of history. The line of fathers and sons covered in this chapter span 1,656 years (Adam to Noah).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speculation surrounding what happened during the antediluvian (pre-flood) time. The bible however is the only reliable record we have.

So make no mistake. Chapter 5 of Genesis is both significant and important. The main reason for its importance is that we are reading here forms part of the Messianic genealogy. This is the seed line of promise. That's a term I'll mention a number of times through this sermon. The line of salvation and promise flows through these men and eventually ends, many centuries later in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So this then is not some dull dry historic account of people to whom we have

no connection. This is the family line of our big brother.

So as I hope you now appreciate Genesis 5 is important. It serves to link or connect the history of creation and the earliest human beings with the time of Noah and the flood. Mose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very skilfully accomplishes this by providing us with genealogical record of Adam's descendants through his son Seth. The record contains the mini histories of ten patriarchal figures.

They are as follows; Adam, Seth, Enosh, Cainan, Mahalalel, Jared, Enoch, Methuselah, Lamach and Noah.

As we go through the chapter we will see a recurring pattern emerge. For each person listed we get the following five pieces of information.

- 1 The name of the father.
- 2 The age of the father at the birth of their firstborn son.
- 3 The name of the firstborn son.
- 4 The duration of life of the father after the firstborn, along with a reference to other children.
- 5 The age they were when they died.

This pattern is consistent all the way through.

### 서론

5 장에서 성경 최초의 긴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4 장에 나온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에 대한 기계도는 5 장의 내용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5 장은 대단히 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의 목록입니다. 아마도 성경 마니아들만 흥미를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만나면 우리는 한숨을 지도 모릅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며, 저는 오늘 이 구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족보 연구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이 귀중하고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도 완전히 건너뛰거나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이 실제 인류 역사의 기록임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알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실제 사람들, 실제 가족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고, □□□□ 죽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족보는 이 땅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결국 모두 죽을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5 장은 이 긴 역사적 시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란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656 년에 걸쳐 이어집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 장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구절이 중요한 주된 이유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씨의 계보입니다. 이 설교 동안 여러 번 언급할 용어입니다. 구원과 약속의 계보는 이 사람들을 통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지루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형님의 족복입니다. 이제 창세기 5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창조 그리고 최초의 인류 역사를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 연결해 줍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는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 이어지는 후손들의 족보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열 명의 족장 인물의 간략한 역사가 담겨 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아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 장을 읽다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각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1. 아버지의 이름
2. 첫째 아들을 낳았을 당시 아버지의 나이
3. 첫째 아들의 이름
4. 첫째 아들을 낳은 후 아버지의 생존 기간 및 다른 자녀에 대한 언급
5. □ □ □□ □□

이 패턴은 전체 장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Before we get into the passage itself let me say a few things about the ages that are recorded here. As I'm sure you have noticed all the men recorded here enjoyed VERY long lives. The average life span for the men recorded in this genealogy was 857 years. Would you like to live this long? Imagine what you could do or accomplish in such a long life.

South Korea today ranks 5<sup>th</sup> globally for life expectancy (worldometer). In case you were wondering Monaco is at number one. The life expectancy for both sexes in Korea is 84 years. The US comes in 61<sup>st</sup> place on the list with a life expectancy of 79 years. Nigeria bring up the rear. It lies in 232<sup>nd</sup> place with a life expectancy of just 55 years. This means that those ancient men lived on average ten times longer than people today.

What are we to make of these numbers? Are we to understand them literally, or is something else going on. As you can imagine there is considerable disagreement on this subject. Many modern commentators buy into the scientific assertions that no one can, or could have ever lived that long.

The longest documented and verified human lifespan that we have is that of Jeanne Calment of France (1875–1997). She lived for 122 years and 164 days. So even the longest lived people today fall way short of the ages recorded in Genesis chapter 5. The assumption is therefore that there must be some error. It's either that the bible is wrong, or that we are misunderstanding the words or concepts being conveyed in the scriptures. So what then are some of the solutions proposed to try and rectify this supposed error?

Some have argued that the “years” in view are really months or perhaps seasons. Let us run with this idea for a moment and see if it computes. Let's take Methuselah. We are told in scripture that he lived for 969 years. Let us change this and say it was actually 969 months or 81 years. Yes, you might be saying. That sounds much more reasonable. But, it would mean that he become a father aged 16 (possible) and that he was born when his father Enoch was only six (very improbable). It would also mean that Adam was 120 months old (10 years old) when Seth was born.

Linguistically it also makes no sense. You won't be surprised to learn that Hebrew has words for both “year” and “month.” If Moses really meant “month” then why not just use the Hebrew word (chodesh).

Others argue that a “year” was not measured in the same way that we do. It was not 365 days. In the modern world, we know that a year equals the number of days it takes the earth to revolve around the sun. But this knowledge was only discovered in the 17th century by Galileo. So was an ancient year a different, much shorter period of time? Well, we know that at the time of Moses the Egyptians used a Civil Calendar of 365 days. They used this system for almost 4,500 years. So I think we can dismiss this proposal too.

Another popular view is that the years are symbolic. The problem is, we don't have the key to interpreting the symbols.

I have also read the claims that these ages are artificially inflated. That these patriarchs were deliberately given these high ages to impress readers. These men must have been godly and special

because God allowed them to live so long. The idea being conveyed is that they were not just “ordinary men” but were instead biblical superheroes. This was Martin Luther's view.

What then are we to make of these long life spans? How are we to understand them? Literally, symbolically or that they represent some other measure of time that is not literal. I share the view of many conservative commentators such as Dr John MacArthur and Thomas Constable. They argue that there is no reason to approach this genealogy any differently than you would approach any other part of the Bible.

This means we take what we read here in Genesis to be literal. It's referring to real years exactly as we think of them. After all when we come to other mentions of “years” in the bible we do not assume that they must mean “months” or “seasons” We read and understand with context in mind and this helps us understand what the writer intended. So why not do the same here. We have no reason to assume that what is recorded here in Genesis 5 is not literal. These men lived extraordinarily long lives.

Why should this be a problem. We were designed by God to be eternal creatures. Lest we forget God's perfect creation was still in its infancy. The genetic decay and the diseases that inevitably shorten our lives today had yet to really take hold. The men who lived in the pre-flood world just lived long lives. It's really that simple. We will however see a rapid decline in life spans following the flood.

Now with our introduction complete let us dive into the text.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나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남성들은 매우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857 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긴 생애 동안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평균 수명 5 위 국가입니다(월드오미터 기준). 참고로 1 위는 모나코입니다. 한국의 남녀 평균 수명은 84 세입니다. 미국은 79 세로 61 위이고,  $\square\square\square\square$  55 세로 최하위인 232 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대 남성들이 오늘날 사람들보다 평균 10 배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현대 비평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누구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었고,  $\square\square\square\square$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프랑스의 잔 칼망(1875~1997)으로 122 년 164 일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가장 오래 산 사람조차도 창세기 5 장에 기록된 수명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틀렸거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년year"이 실제로는 "개월month"이나 "계절season"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므두셀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969 년을 살았다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969 개월 즉 81 년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그게 훨씬 더 타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므두셀라가 16 세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이고 (가능할듯), 그의 아버지 에녹은 겨우 6  $\square\square\square\square$  리를 놓았다는 건데 매우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은 셋이 태어났을 때 겨우 120 개월(10  $\square$ )이었다는 말입니다.

언어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당연히 "년year"과 "월month"을 뜻하는 단어가 각각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실제로 "월"을 의미했다면 히브리어 단어(chodesh)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년year"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과 달랐다고 주장합니다. 1 년이 365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대에는 지구의 공전 주기가 1 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은 17 세기에 갈릴레오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1 년은 지금과는 달리 훨씬 짧았을까요? 모세 시대의 이집트인들이 365 일로 이루어진 민간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체계를 거의 4,500 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도 무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연수들이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징들을 해석할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이들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족장들의 수명을 길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토록 긴 수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경건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속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긴 수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상징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시간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저는 존 맥아더 박사나 토마스 콘스타블과 같은 많은 보수적인 주석가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족보를 다룰 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룰 때와 다르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창세기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년year'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년year"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월"이나 "계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맥 안에서 읽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 저자가 의도한 바를 파악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 장에 기록된 내용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들은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유전적 퇴화 및 질병이 아직 만연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저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론은 마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This is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Adam. In the day that God created man, He made him in the likeness of God. 2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and blessed them and called them Mankind in the day they were created. 3 And Adam lived one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begot a son in his own likeness, after his image, and named him Seth. 4 After he begot Seth, the days of Adam were eight hundred years; and he had sons and daughters. 5 So all the days that Adam lived were nine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he died.**

Chapter five begins by telling us exactly what it is we are reading. We are reading an account or a toledat (a genealogy) of the ancestral seed line connecting Adam to Noah. The account comprises 10 generations and spans a little more than 1,500 years. There has as I mentioned before been a great deal of speculation about this time period. The antediluvian age is a mysterious, and therefore fascinating one. The bible, the only reliable source we have unfortunately tells us very little. As we have seen in previous studies it was a time that witnessed the birth of human societies, culture, construction and industry. We should, I think imagine it as being a time of amazing development and rapid progress as human beings embraced God's command to take dominion over the earth. It was also unfortunately a time of increasing sin and godlessness. A time in which human rebellion against God flourished. Anyway, back to the bible.

Interestingly the account is described in verse 1 as being a "book" (*sepher*). This is the only time a toledat is described in this way. What it means is that what Moses is outlining here came to him in written form. This was probably not in the form of a book as we know it, but rather as a document. It may have been written on a scroll or inscribed on a clay tablet. The writer, perhaps Adam himself takes us right back to the creation event.

What we are reading in verses one and two is a restating of Genesis 1:26–27. We are reminded that human beings, both male and female are made in God's image and likeness. God was pleased with His work and blessed humankind.

With this general introduction complete we then dive directly into the genealogy. It begins with the

very first human being created; Adam. As I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we will see a familiar pattern emerge. First we are told the father's name. Here it is Adam. As I have told you before this is the Hebrew word for both “man” singular and “mankind” plural. When Adam was 130 years old he became the father of Seth. Why you might be wondering are we jumping ahead to Seth. What about Cain and Abel?

It's very important that we recognise that what we are reading here in Genesis 5 is the line of the seed of promise. Abel, the righteous son was the original seed of promise. He was the one who trusted God and made an appropriate offering to the Lord. But as we have seen he was murdered by his brother Cain. Cain's family line as outlined at the end of chapter 4 was an ungodly line. It would be cut off permanently at the global flood. So with the death of Abel the seed line of promise seemingly comes to an end. But of course God has made a promise (Gen 3:15). A seed line that leads to a saviour will come through the woman. God cannot lie or break a promise, so Seth is born. As we saw in chapter four Eve recognises him as being the “replacement” or “substitute” for Abel (Gen 4:25).

We are told that Seth was born in the likeness and image of his father Adam. Now obviously children are a genetic mix of their father and mother. They frequently share certain characteristics. They may have a similar shaped nose, lips or eyes. They may have the same colour hair or body type. But we are being asked here to go beyond a mere surface level appraisal. The bible is not telling us that Seth inherited Adam's brown curly hair.

When Adam was created he was made in the likeness and image of God. He was pure and perfect just like God. But this is not said about Seth. You see Seth inherited the sinful nature of his father Adam. He was born, just like all of us with an imperfection. We are all born with inherited sin. Only one man since Adam was born perfect. Only one man in 6000 years was born on this earth without an inherited sin nature.

Adam lived for a further 800 years following the birth of Seth. As a good and obedient man he followed God's command to be fruitful and multiply. We are told he had sons and daughters. As I have mentioned before this could have been a considerable number. The Jewish historian Josephus writing in the first century AD reports that Adam and Eve had 56 children 33 sons and 23 daughters. (Flavius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Book 1, Chapter 2, Paragraph 2, Endnote 8.)

Why are none of their names recorded?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ly, that they clearly did nothing notable or important from a scriptural perspective. And secondly, and far more importantly this genealogy is focused primarily on the seed line of promise. It is never intended to be a detailed or complete account of who was born to whom.

Adam's very long life came to an end and he died aged 930.

Before moving on I just want to highlight something that might not be readily apparent. On the screen you can see a timeline running from Adam to Noah. What do you notice? As you can see Adam lived from the very beginning all the way up to when Lamech was 56 years old. This means that Adam saw all the way up to nine generations. He was there to guide, inform and educate all those generations of people of the time he walked with God, and lived in the garden.

Adam died just one generation before the world was destroyed by the global flood. How amazingly generous and gracious God was to this man.

It's time now to look at his son.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book 아나라 하나님이 □□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되 2 □□ 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 아담은 셋을 □□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 5 그는 구백삼십 세를 □□ 죽으셨더라**

5 장은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족보)입니다. 이 계보는 10 세대에 걸쳐 1,500 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대홍



로우셨는지요

이제 그의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 Seth lived one hundred and five years, and begot Enosh. 7 After he begot Enosh, Seth lived eight hundred and seven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8 So all the days of Seth were nine hundred and twelve years; and he died.**

We read here the account of Seth. His name means “anointed.” When he was a sprightly 105 he had a son named Enosh. After the birth of the “seed son” he lived a further 807 years. During this time he too followed God's command to be fruitful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He eventually died aged 912.

Let us read on.

**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고 7 에노스를 낳고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8 그는 구백십이 세를 죽었다**

여기서는 셋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anointed)"라는 뜻입니다. 그는 105 세에 아들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 "씨의 아들(seed son)"이 태어난 이후에 셋은 807 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라"는 명령에 따라 다른 이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12 세에 죽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 Enosh lived ninety years, and begot Cainan. 10 After he begot Cainan, Enosh lived eight hundred and fifteen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11 So all the days of Enosh were nine hundred and five years; and he died.**

We are now into the third generation. Seth's son was Enosh. His name means “frail man.” At the age of 90 he had a son named Cainan. Sometimes you will see his name spelled with a “K.” Following the birth of Cainan Enosh lived an additional 815 years and he too had further sons and daughters. After a long and fruitful life of 905 years he died.

Let's move on.

**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고 10 게난을 낳고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11 그는 구백오 세를 죽었다**

이제 3 대째로 넘어왔습니다. 셋의 아들은 에노스였고, 그의 이름은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90 세에 아들 게난(Cainan)을 낳았습니다. 때때로 그의 이름은 "K"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게난을 낳은 후 에노스는 815 년을 더 살았고, 그 역시 이들과 딸을 더 낳았습니다. 그는 길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905 세에 죽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 Cainan lived seventy years, and begot Mahalalel. 13 After he begot Mahalalel, Cainan lived eight hundred and forty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14 So all the days of Cainan were nine hundred and ten years; and he died.**

We enter now into the fourth generation after Adam. Cainan's name means “smith” as in blacksmith or coppersmith. Someone who works with metal. Although you can probably see the similarity with the name “Cain.” Cain means “acquired” so it is likely that both of these meanings apply here. At the age of 70 he had a son named Mahalalel. After the birth of this son he lived for another 840 years during which time he fathered other sons and daughter. He died aged 910.

Let us find out about his son.

**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13 마할랄렐을 낳고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14 그는 구백십 세를 죽었다**

이제 아담의 4 대손으로 넘어갑니다. 게난(Cainan)이라는 이름은 대장장이를 뜻합니다. 금속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인(Cain)'이라는 이름과 비슷해 보입니다. 가인은 '획득한(acquired)'이라는 뜻이므로, 두 가지 뜻이 모두 이

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난은 70 세에 아들 마할랄렐을 낳았고 그 후 840 년을 더 살면서 다른 이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는 910 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 Mahalalel lived sixty-five years, and begot Jared. 16 After he begot Jared, Mahalalel lived eight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17 So all the days of Mahalalel were eight hundred and ninety-five years; and he died.**

We turn next to Mahalalel. The fifth generation from Adam. His name means “praise of Elohim.” He fathered his “seed” son Jared at the young age of 65. Following this he lived for a further 830 years during which time many additional sons and daughters were born. It's worth emphasising here that the earth was experiencing a rapid and massive population increase. This is only speculation of course but doctors John Whitcomb and Henry Morris estimated that the population of the earth at the time of the flood was approximately one billion people.

At the age of 895 Mahalalel died.

Let's read on.

**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아렛을 낳고 16 아렛을 낳고 후 팔백삼십 년을 자니며 자녀를 낳고 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죽었다**

다음은 아담의 5 대손인 마할랄렐입니다. 그 이름은 "엘로힘을 찬양하라 praise of Elohim" 는 뜻입니다. 그는 65 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의 "씨 seed" 인 아들 아렛을 낳았습니다. 그 후 830 년을 더 살면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지구상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추측이지만 존 휘트콤과 헨리 모리스 박사는 대홍수 당시 인구가 약 10 억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마할랄렐은 895 세에 죽었습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18 Jared lived o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nd begot Enoch. 19 After he begot Enoch, Jared lived eight hundred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0 So all the days of Jared were ni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nd he died.**

Jared whose name means “descent” was the sixth generation to follow on from Adam. At the age of 162 he fathered Enoch. Enoch as we shall soon discover was someone special. Jared lived for another 800 years after the birth of Enoch. As with all the other patriarchs in the genealogy he had additional sons and daughters. At the age of 962 Jared died. He is notable for having the second-longest lifespan in recorded history.

Lets turn to Enoch.

**18 아렛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고 19 에녹을 낳고 후 팔백 년을 자니며 자녀들을 낳고 20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죽었다**

이름의 뜻이 "혈통 descent" 인 아렛은 아담의 6 대손이었고, 162 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렛은 에녹을 낳은 후에도 800 년을 더 살면서 다른 모든 족장들처럼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렛은 962 세에 죽었고, 역사상 두 번째로 장수한 인물입니다.

이제 에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Enoch lived sixty-five years, and begot Methuselah. 22 After he begot Methuselah, Enoch walked with God three hundred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3 So all the days of Enoch were three hundred and sixty-five years. 24 An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Enoch whose name means “dedication” was the seventh generation after Adam. At the age of 65 he fathered Methuselah. We then see a slight break in the usual pattern. We are told that Enoch “walked” with God for 300 years. During this time he fathered additional children. What does it mean to “walk with God?” Well, it is telling us that Enoch was an extremely godly and righteous

man. He was obedient and loyal to God. To “walk” alongside someone speaks of close intimacy and friendship. The question we might be tempted to ask is what about the other patriarchs? Were the other men in this seed line righteous? The bible does not tell us. It's certainly possible, I would argue that their inclusion in the seed line implies that they probably were. It does however single out Enoch for special mention. There was clearly something unique about him. This truth is affirmed by what we read concerning Enoch in the New Testament. In the “hall of faith” that we find in chapter 11 of the Book of Hebrews we read the following.

**By faith Enoch was taken away so that he did not see death, “and was not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for before he was taken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 (Hebrews 11:5)**

That Enoch was particularly special is revealed by what become of him. At the age of 365 he literally walked right up into heaven. Enoch did not die. He joins a very exclusive club with Elijah who was also taken up to be with God in heaven without physically dying (2 kings 2:11). Let us continue.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고 22 므두셀라를 낳고 후 365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23 그는 365 세를 살았고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 하였더라**

에녹은 이름의 뜻이 "헌신dedication"이며, 아담의 7 대손입니다. 그는 65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22 절은 지금까지 반복되던 패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walked"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에녹이 자극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와 우정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다른 족장들은 어땠을까요? 이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도 의로웠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도 의로웠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녹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 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5)**

에녹이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365 세에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데려가신 엘리야처럼 매우 특별한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11)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 Methuselah lived one hundred and eighty-seven years, and begot Lamech. 26 After he begot Lamech, Methuselah lived seven hundred and eighty-two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27 So all the days of Methuselah were nine hundred and sixty-nine years; and he died.**

Next in line, eight generations from Adam we come to Methuselah the son of Enoch. When it comes to the meaning of his name there is some disagreement. It could either mean “man of the spear” or “When he dies, it shall be sent.” I am inclined to think that the latter makes more sense. Here's why.

His father, was the righteous prophet Enoch. A man who pleased God by denouncing the wickedness of his age. It's highly likely then that he would have named his son as a prophetic warning that something drastic would happen when he died. What do you suppose that drastic thing might be? I'll give you a clue. Think lots of water.

Methuselah died in the flood year of 1656. So quite literally after he died God sent His divine judgement upon the wicked.

At the age of 187 Methuselah fathered Lamech. Following this he lived for another 782 years. He died at the age of 969. This means he holds the distinction of having the longest recorded life span in history.

Let us look next at his son Lamech.

**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리멕을 낳고 26 리멕을 낳고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고 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마치 죽었다**

아담의 8 대 후손인 므두셀라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창을 든 사람" 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녹은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악을 꾸짖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아들에게 므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언적인 경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입니다.

므두셀라는 기원전 1656 년 대홍수가 있었던 해에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므두셀라는 187 세에 리멕을 낳았고, 그 후 782 년을 더 살다가 969 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아들 리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8 Lamech lived one hundred and eighty-two years, and had a son. 29 And he called his name Noah, saying, "This one will comfort us concerning our work and the toil of our hands, because of the ground which the LORD has cursed." 30 After he begot Noah, Lamech lived five hundred and ninety-five years, and had sons and daughters. 31 So all the days of Lamech were seven hundred and seventy-seven years; and he died.**

We find ourselves now nine generations from Adam. Our journey is almost at an end. Methuselah's son of promise was Lamech. His name means "warrior" or "conqueror." This is of course the same name as one of Cain's descendants. That Lamech as we saw in a recent study was most definitely not a good and righteous man. He was a boastful, polygamous murderer. The Sethite Lamech however was righteous. At the age of 82 he fathered Noah. He goes on to explain why he chose that particular name. He tells us that out of the cursed ground, Noah would bring relief from the painful work and toil of his people's hands.

There is some disagreement about what is meant by this. Perhaps Lamech simply meant that Noah would bring relief from God's curse on men by sharing in the painful work of getting crops from the ground. Others think his prophecy was far grander. That he, just like Eve with Abel believed his son to be the chosen messiah. In truth we do not know for sure what Lamech had in mind. We do know however what God had in mind for Noah. He had a very special plan for him.

After the birth of Noah Lamech lived for a further 597 years. He also had the pleasure of fathering many additional sons and daughters. At the age of 777 he died. This meant that he had the lowest recorded natural lifespan to date. In fact, his own father Methuselah would outlive him by five years.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by looking at the following verse.

**28 리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 리멕은 노이를 낳고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고 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마치 죽었다**

이제 아담의 9 대 후손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므두셀라의 약속의 아들은 리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사" 또는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가인의 후손 중 한 명의 이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 □□□ □□ □□□ □□□ □□□□□□. 그는 거만하고 일부다처를 행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리멕은 의로운 지였습니다. 그는 82 세에 노아를 낳았고, 이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저주받은 땅에서 노아가 사람들의 힘든 노동과 수고를 덜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노아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고된 노동을 리멕이 함께 함으로써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를 덜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예언이 훨씬 더 거창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와가 아벨을 믿었던 것처럼, 그 역시 자신의 아들이 선택받은 메시아라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 □□□ □□□ □□□ □□□ □□ □□□□□,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해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후 리멕은 597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777 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 기록된 이들중 가장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 므두셀라는 그보다 5 년 더 살았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2 And Noah was five hundred years old, and Noah begot Shem, Ham, and Japheth.**

This whole chapter of genealogy ends with the birth of three sons to Noah; Shem, Ham and Japheth. The name Noah means “comforter” or “rest.” Very little is told of the circumstances regarding the birth of his sons. Simply that when Noah was 500 years old he fathered three sons. I can guess what you may be thinking. Is this the first recorded case of triplets being born. Sadly not. It is very important to interpret Scripture with Scripture. When we look at other similar passages it soon becomes apparent that this is not telling us that triplets were born when Noah was 500 years old. This can be deduced from the fact that Shem had his son Arphaxad 2 years after the flood when he was 100 years old (Gen 11:10). This means that Shem was 98 years old when the flood came. He was born when Noah was 502. Ham is stated to be the youngest of Noah's sons (Gen 9:24). So logically Japheth must have been the eldest. Therefore Genesis 5:32 is telling us how old Noah was when Japheth alone was born.

	Son's name	Age of Noah when son was born	Approx date after creation
1	Japheth (1st born)	500	1556
2	Shem (2nd born)	502	1558
3	Ham (3rd born)	?	?

Interestingly, Noah is the first patriarch who is not explicitly described as having other unnamed sons and daughters. Technically, the Bible does not say that Noah did not have other children. And yet, all the patriarchs listed were said to have other offspring.

Was this an act of mercy on the part of God? It would have been merciful, indeed, to spare Noah the pain of seeing any of his children killed in God's judgment. Or perhaps Noah's other children were ungodly children and Noah had the torment of knowing that they perished due to their rejection of the Lord. We would all love to believe that God will save our loved ones but that is ultimately God's choice. He is under no obligation to save those who reject His free offer of salvation.

And so our journey through the seed line of Adam comes to a close. We have examined a group of fathers and sons who carried God's promise through to Noah. I hope you found it interesting and not too much of an ordeal.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God's judgement fall upon the wickedness of human beings.

**32 노아는 오백 세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라**

이 족보의 전체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자comforter" 또는 "안식rest"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태어난 상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노아가 500 세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세 쌍둥이가 태어난 최초의 기록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들과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노아가 5

00 세였을 때 세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셈은 대홍수 후 2 년이 지나 100 세의 나이에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창세기 11:10). 즉, 셈은 홍수가 났을 때 98 세였으므로, 노아가 502 세에 그를 낳았습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들 중 막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세기 9:24). 논리적으로 보면 아벳이 장남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5 장 32 절은 아벳이 태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500 세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름	아들 탄생 때 노아의 나이	창조 후 추정 연대
1	아벳(장남)	500	1556
2	셈(차남)	502	1558
3	헴(막내)	?	?

흥미롭게도, 노아는 다른 아들딸이 있었다는 언급이 없는 최초의 족장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노아에게 다른 자녀가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모든 족장들은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을까요? 노아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보는 고통을 면하게 해 주셨다면 분명 자비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노아의 다른 자녀들이 불경건한 자들이었고, 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임을 알고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제안을 거부하는 자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족보를 따라간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까지 이어간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흥미로웠고 너무 힘들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다음주에는 인간의 악행에 대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We are on God's time**

Korea is world-famous for its speedy approach to life. The “balli balli” culture dominates life here. Time is a precious commodity and not one to be squandered or wasted. In the main I've come to value and appreciate it. When I compare everyday life here in Korea to how things are in the UK I know which I prefer. Let me tell you a story to illustrate.

Recently my mother in the UK decided to change her internet provider. She found a service provider and called them to come around and install the new system. Of course being the UK they can never do things immediately, or even the next day like they could in Korea. They had an available slot in a week's time. When they arrived seven days later they discovered some unforeseen problem and had to leave without providing the internet. They could only return to fix the issue in another week's time. So two weeks later my mother finally received her internet connection. By British standards that's pretty efficient. In Korea that company would be out of business!

When it comes to God's work in the world many of us would like a “balli balli” God. One who snapped to attention and answered our prayers immediately. When we read the biblical genealogies it should serve to remind us that God is patient and measured. His plans often unfold over very long periods of time. This is because God is outside of time. He knows the full and complete picture. We who are confined by space and time are not privy to this view.

We might think that God is slow to act, or even that He has forgotten us altogether.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As our loving heavenly father He never neglects or forgets us. So let us

learn to be patient and measured. Let us trust like those ancient patriarchs of Genesis 5 that God is working. That one day He will fulfil His promises.

**1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한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빨리빨리"가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절실히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과 영국에서의 일상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업체를 찾아 전화를 걸어 새 인터넷 설치를 요청하셨죠. 영국에서는 한국처럼 바로, 아니면 다음 날 설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후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7 일 후에 와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으며 인터넷 설치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일주일일이 지나야 다시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2 주가 지나야 어머니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꽤 빠른 편이죠. 한국이었다면 그 회사는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빨리 빨리"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족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신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행하신다거나 심지어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5 장에 기록된 고대 족장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2 What we are called to do**

The mini-histories that we looked at today in chapter 5 are incredibly brief. Let's just take one for example. Jared lived for 962 years or approximately 350,970 days. That's a lot of time! Imagine all the things he must have done in this vast span of time. He could have become great at golf, a grandmaster at chess, an accomplished painter, musician, cook or dancer. In all probability he mastered many things during his long life. Imagine what you could do with all that time. However all the bible tells us is that he fathered a son named Enoch when he was 162, had other children and died aged 962. Why you might ask are these other details surrounding the lives of these important historical figures not included. Simply put because they are irrelevant. In the grand scheme it does not matter. What is important, and therefore what is recorded is that these men were faithful and trusted in God. They obeyed God's command to be fruitful and multiply. We must also assume, given their place in this genealogy that they raised their children to fear, honour and respect the Lord. This is what they were called to do.

The same instruction remains relevant to all of us today. This is what we are called to do. We are called to faithfully trust, obey and serve God wherever He has placed us. If we have children we are to raise them to know and love the Lord. This means that our accomplishments whilst we are here on earth ultimately amount to nothing. Will eternity care whether we were a published author, cooked a mean lasagne or were a table-tennis champion? All that God will remember and judge us on is our faith and trust in Christ and whether we lived to serve Him. Let us then strive to be faithful and do what we are called to do.

**2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살펴본 5 장에 기록된 역사는 놀랍도록 간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렛은 962 년 즉 약 350,970 일을 살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골프의 달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되었을 수도 있고, 뛰어난 화가, 음악가, 요리사, 무용수가 되었을 수도 있

습니다. 아마도 그는 긴 생애 동안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가 162 세에 아들 에녹을 낳았고, 다른 자녀들도 낳았으며, 962 세에 죽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의 삶의 다른 세부 사항들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충실했고 그분을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족보에서 그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따르도록 양육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게 신봉하고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주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은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출판했는지, 맛있는 라자나를 만들었는지, □□□□□□□□□□ □□□□ □□□□□□□□ ?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았는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을 행하는데 힘써야 합니다.